

■ 교육

AP·IB 과목 이수 학생과 일반 학생 합격률 차이는?



▲ UC버클리 Doe Memorial Library 전경. UC버클리는 IB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의 합격률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32%p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명문대학들은 여러 입학 사정 요소를 가지고 학생을 선발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요소만 무려 19가지나 된다. 그렇다고 모든 입학사정 요소들의 비중이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대학들이 가장 많이 주목해 보는 것이 무엇일까? 영어로 'Course taken', 혹은 'Rigor of secondary school record' 라는 요소이다. 대학들이 이 요소를 중요하게 보는 것은 학생이 대학에 와서 잘 따라올 수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대학 과정의 교과목인 AP, IB과목은 분명 매우 수준 높은 아카데믹 코스이다. 이 과정을 제대로 이수한 학생들은 대학에서 잘 적응할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대학들은 이 코스를 잘 이수한 학생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는다. 그렇다면 대학들은 이 가운데 어떤 것을 더 선호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미국 대학은 AP나 IB 두 가지 모두를 똑같이 인정한다. 어느 과정이든 모두 잘 끝낸 학생들에게 입학 사정에서 분명히 가산점을 부여한다.

AP와 IB의 차이는 AP는 학생이 개별 과목을 선택해서 듣고, IB는 정해진 코스를 따라서 듣는 것이다. IB는 HL, SL 레벨에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지만 기

본적으로 IB가 개설된 학교에서만 수강할 수 있다.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 보통 6-10개 정도의 AP 과목을 이수한다. 물론 그보다 많은 과목을 이수하는 학생들도 있다.

AP의 경우 5점 만점에 4 또는 5점을 받으면, IB의 경우 7점 만점에 5점 이상을 받으면 잘 한 것으로 간주된다. 점수가 높으면 대학에서는 1학년 크레딧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미국대학 입시에서는 고등학교에서 AP, IB 코스를 내신으로 이수하면서 좋은 과목 점수를 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본다.

미국 명문대학들이 최근 IB를 한 학생들의 합격률과 일반 합격률을 비교한 자료를 공개했다. 하버드의 경우 평균 합격률이 7%인데 비해 IB를 한 학생의 합격률은 10%로 3%p 높았다. 예일대는 11%p, 프린스턴대는 경우 8%p, 스탠포드대는 8%p, 코넬대학은 13%p 더 높았다.

UC계에서는 UC버클리 32%p, UCLA가 25%p로 IB 이수자의 합격률이 더 높았다. 주립대학이나 일반 사립대학에서 IB를 한 학생이 일반학생들보다 훨씬 더 합격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AP과목을 많이 수강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일반 학생들보다 몇 %가 높았는지에 대한 자료는 없어서 AP와 IB를 대조하기는 어렵다.

■ 주택 융자 이야기

9. 주택 재융자(Refinance)

최근에 낮은 이자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COVID-19으로 인한 여러 정치적 경제적 상황들을 인해 FRB가 금리를 0%대로 낮추었기에 주택융자의 금리도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부동산 시장도 매매가 둔화되고 잠정적으로 숨고르기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금리 현상은 미국 국내의 여러 비즈니스가 재오픈되고 달러화의 약화를 방관만 할 수 없는 FRB 입장에서, 사회적 분위기가 안정되는 대로 언제든지 다시 금리인상을 추구하리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도 다시 활기를 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여건만 된다면 서둘러 재융자를 해 이자를 낮추고 할 수만 있다면 캐시 아웃을 해서 현금을 확보해 두는 것도 생활의 한 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FRB금리가 0%대를 유지하고 있으니 주택융자 이자도 0%대로 내려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인데, 사실 지금의 FRB 금리는 단기간에 한해 이자를 낮춘 것이기에, 30년 고정이나 15년 고정과 같은 주택융자의 이자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INDEX가 낮아져도 은행이 기본적으로 부과하는 은행의 영업이익 곧 MARGIN 때문에 지금보다 이자가 더 내려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융자를 생각하는 분은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융자를 통해서 이자율을 낮추려 할 때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이자율과 재융자 이자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와 연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내가 이 집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랜 기간을 거주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4년 거주하다가 집을 팔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재융자를 하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융자는 앞으로 최소한 5년 이상 더 살 계획을 갖고 계신 분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30년 고정이자로 재융자:

최근의 주택 이자율의 동향을 보면, 30년 고정, 컨퍼밍(융자금액이 \$500,400 이하) 융자의 경우 3.25% 정도가 됩니다. 이 이자율보다 1% 이상의 이자율을 갖고 계신 분이나, 혹시 변동이자로 페이먼트를 내고 계신 분은 이자율이 다시 오르기 전에 서둘러서 재융자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융자 금액이 \$400,000 인데 이자율이 4.5%라고 하면, 매월 \$2,027.74의 페이먼트를 내고 계실 것입니다. 이를 재융자하여 3.5%의 이자율로 낮춘다면, \$1,796.21의 페이먼트가 됩니다. 그러면, 매달 \$230.53의 페이먼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재융자 비용으로 Escrow Fee, Title Insurance, Loan Fee, Lender Fee 등의 지출이 \$2,500 정도 소요된다 하여도, 1년 정도가 지나면 그 비용은 상쇄가 됩니다. 그러므로, 재융자는 기존의 이자율과 1% 정도 차이날 때 하는 것이 가장 유익합니다.

물론, 이자율의 차이가 꼭 1%가 안 되어도 현재 갖고 계신 융자 금액이 60만 불 혹은 70만 불 이상이 될 경우에는 0.5%만 이자를 내릴 수 있어도, 그 비용이 상쇄되는 기간이 1-2년 정도 걸려서 그렇지 페이먼트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줄어드는 이자율 차이를 1% 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바꾸고, 줄어드는 페이먼트의 차이를 고려해서 재융자를 하면 이 또한 큰 이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1319호에서 계속됩니다.>

▶ 수잔 유(G7 융자 213-434-8669)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Allstate
 You're in good hands.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기찬 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